



캔톤(CC)

주요내용설명서(국문백서)

Korean White Paper

2026년 6월 23일

Disclaimer

본 번역본은 2026년 6월 23일 기준의 캔톤(Canton) 백서 및 블로그의 관련 내용 위주로 번역되었습니다.

빗섬은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가 제공하는 가상자산의 총발행량, 유통량 계획, 사업 계획 등이 포함된 정보를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번역본은 그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원문의 내용이 일부 누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습득을 위해서는 원문을 참고하시거나 원문 작성 측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 번역본은 오픈 커뮤니티의 검토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소개

칸톤(Canton)은 스마트 컨트랙트¹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Network of networks)’입니다. 마치 인터넷처럼 서로 다른 운영 환경을 유연하게 수용하고 확장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실시간 동기화: 기존 블록체인과 마찬가지로 참여자 간의 민감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동기화합니다.
- 공용 네트워크와 보안: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용 네트워크 상에서 운영되지만 프라이빗 블록체인 수준의 강력한 정보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네트워크 내 애플리케이션들은 단일한 공용 원장을 공유합니다.
- 프로그래밍 가능한 프라이버시(Dam1): 칸톤은 ‘Dam1’이라는 독자적인 스마트 컨트랙트 언어를 사용합니다. 개발자는 Dam1을 통해 모든 자산과 데이터에 정보 보호 기능을 프로그래밍 단계에서부터 직접 탑재할 수 있습니다.
- 독립적 확장성과 저렴한 비용: 칸톤 프로토콜은 각 애플리케이션이 독립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덕분에 사용자가 늘어나도 시스템 가용성은 유지되며 수수료는 낮게 관리됩니다.

칸톤은 현재 공용 원장² 시장에 존재하는 기술적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 이더리움, 솔라나, 테조스처럼 단일 가상 원장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 동시에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³나 지캐시⁴처럼 정보를 선택적으로 공개하는 강력한 프라이버시 기능을 갖추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2023년 초 기준, 이미 다수의 금융 기관들이 칸톤의 폐쇄형 서브넷⁵을 활용하여 매일 5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¹ Smart contract

² Public ledger

³ Lightning network

⁴ Zcash

⁵ Subnet

비즈니스 모델

Daml

Daml은 여러 참여자가 함께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효율적으로 개발, 운영 및 유지 보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오픈 소스 스마트 계약 언어이자 프레임워크입니다. 특히 개발 과정에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데이터의 정확성(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Daml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즈니스 로직 중심 설계:** Daml은 현실 세계의 복잡한 비즈니스 거래 규칙을 그대로 소프트웨어에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덕분에 개발자는 흔히 발생하는 보안 허점을 걱정할 필요 없이 비즈니스 로직을 설계하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 **강력한 보안 및 권한 관리:** 데이터 접근 및 인증 규칙을 코드 내에 직접 명시하므로 보안 정책과 시스템 운영을 빈틈없이 일치(동기화)시키기가 매우 수월합니다. 모든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비공개이며, 개발자는 접근 권한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어 코드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손쉽게 유지보수할 수 있습니다.
- **유연한 확장과 상호 운용성:** Daml은 서로 다른 네트워크나 애플리케이션에 분산된 워크플로를 결합하여 더 복잡하고 정교한 형태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간 상호 운용성을 지원합니다. 참여자는 기존의 워크플로를 조합하여 독자적으로 기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기능을 확장할 수 있는 이러한 유연성은 네트워크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성장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시스템이 고도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복잡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돕습니다. 또한,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연결하여 하나의 흐름으로 구성하더라도 각 애플리케이션이 요구하는 기밀성과 권한 기준은 엄격하게 유지됩니다.
- **외부 시스템과의 폭넓은 호환:** Daml은 주요 프로그래밍 언어와의 연동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주고, 타 블록체인과 연결(브리지)하거나 표준 및 도메인 특화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등 강력한 통합 도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덕분에 외부 시스템과도 유연하게 호환됩니다.

컨트랙트

Daml에서 정의하는 ‘컨트랙트(Contract)’란 네트워크 참여자 간의 워크플로에 대한 합의 내용을 코드로 구현한 것을 말합니다. 이 합의에 참여한 당사자들을 ‘컨트랙트 서명자(Contract signatories)’라고 부릅니다. 또한, 컨트랙트에 직접 서명하지는 않지만 내용을 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이들도 있는데, 이들은 ‘컨트랙트 관찰자(Contract observers)’라고

합니다. 참여자는 개인 키⁶로 서명하는 단일 개체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설정된 멀티시그⁷ 정책을 따르는 컨소시엄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화된 단일 기관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이 모인 컨소시엄도 자산을 발행하거나 컨트랙트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트랜잭션

컨트랙트는 트랜잭션의 일부로 생성되어 '활성' 상태가 되며, 이후 후속 트랜잭션을 통해 '보관(Archived)' 상태로 처리되어 종료될 수 있습니다. 각 컨트랙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도 네트워크 참여자들 간의 데이터 일관성을 보장하려면 트랜잭션은 다음 두 가지 속성을 갖춰야 합니다.

- 첫째, 서로 다른 당사자들이 트랜잭션 순서에 대해 합의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서로 다른 장부를 보는 문제(데이터 시각 차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둘째, 각 컨트랙트의 프라이버시 규칙에 따라 참여자마다 확인할 수 있는 트랜잭션의 범위가 달라야 합니다. 이를 '서브 트랜잭션 프라이버시(Sub-transaction privacy)'라고 합니다.

참여자는 트랜잭션 전체 내용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관련된 부분만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참여자가 볼 수 있는 트랜잭션의 일부분을 '서브 트랜잭션(Sub-transaction)'이라고 합니다. 현재 유효한 모든 컨트랙트의 목록을 '활성 컨트랙트 집합(ACS, Active Contract Set)'이라 부르는데, 이는 '트랜잭션 그래프'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그래프 안의 모든 트랜잭션은 이전 컨트랙트를 참조하여 기존 컨트랙트를 종료(보관)하거나 새로운 컨트랙트를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트랜잭션은 그래프의 맨 끝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위⁸'로 추가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의 트랜잭션은 여러 개의 서브 트랜잭션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참여자마다 접근 권한이 다릅니다. 따라서 각 참여자는 전체 ACS(모든 계약 상태)를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허용된 일부 영역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비트코인 등 다른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사용하는 UTXO(미사용 트랜잭션 출력값)⁹ 트랜잭션 모델과 유사하지만, 두 가지 눈에 띄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⁶ Private key

⁷ Multi-signa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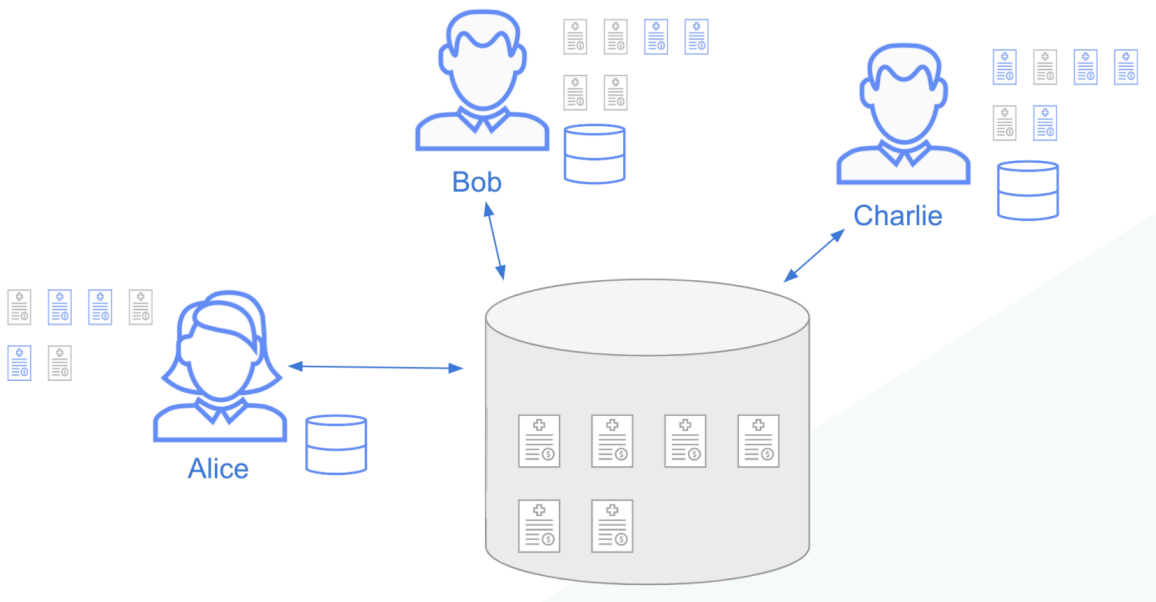
⁸ Atomic

⁹ Unspent Transaction Output

1. 전체 그래프 열람 불가: 네트워크의 그 어떤 참여자도 전체 트랜잭션 그래프를 볼 수 없습니다. 대신 각자는 그래프의 일부분인 자신만의 '뷰(View)'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참여자가 전체 그래프를 볼 수 있는 비트코인이나 카르다노 같은 기존 UTXO 블록체인과는 대조적으로 글로벌 트랜잭션 그래프가 분할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2. 참조된 컨트랙트의 유지 가능: 트랜잭션이 이전 컨트랙트를 참조한다고 해서 반드시 해당 컨트랙트를 보관(종료)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력된 UTXO를 종료할지 여부는 애플리케이션 로직에 따라 결정되며, Daml에서는 이를 '소모함(consuming)' 또는 '소모하지 않음(nonconsuming)'이라는 키워드로 정의합니다. 참조된 UTXO가 무조건 종료되는 비트코인 등과 달리 참조된 컨트랙트를 계속 활성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원장 모델

각 참여자는 자신만의 유효한 원장을 보유하며 칸톤 프로토콜은 이 개별 원장이 전체 글로벌 원장과 항상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도록(동기화되도록) 합니다. 여기서 '글로벌 원장'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개념입니다. 즉, 네트워크상의 그 어떤 참여자도 원장의 전체 데이터를 혼자서 보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과 같이 전체 ACS가 총 6개의 컨트랙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각 참여자는 전체를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한에 따라 (그림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2~4개의 컨트랙트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칸톤 원장 모델]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

Daml은 참여자 중심의 완벽한 분산 원장 모델을 통해 또 다른 차원의 탈중앙화를 실현합니다. 거대한 단일 네트워크에 종속되는 대신 사용자가 직접 자신만의 서브넷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 참여자는 필요에 따라 하나 혹은 여러 개의 서브넷에 동시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여러 서브넷에 연결되어 있다면 칸톤 프로토콜이 서브넷 간의 가상자산 거래를 자동으로 동기화해 줍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Daml 원장 모델은 진정한 의미의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를 구현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설계를 통해 탈중앙화 환경에서도 프라이버시(보안), 성능, 확장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모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칸톤

칸톤 프로토콜과 네트워크 구조

칸톤은 프라이버시 기능을 갖춘 오픈 소스 블록체인 프로토콜입니다. 앞서 설명한 Daml의 원장 모델을 기술적으로 구현한 것이 바로 칸톤입니다. 현재는 Daml 언어를 지원하지만, 이와 유사한 ‘계층적 서브 트랜잭션 프라이버시 모델’을 갖춘 언어라면 무엇이든 지원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가졌습니다.

네트워크 구조

칸톤을 구성하는 노드¹⁰는 ‘참여자 노드’라고 부릅니다. Daml에서 ‘파티(Party)’로 지칭되는 사용자나 기업은 하나 이상의 참여자 노드를 운영하며, 이 노드들이 해당 주체를 대신하여 시스템상에서 활동합니다. 노드 간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메시지 순서를 확정하기 위해 각 참여자 노드는 ‘동기화 도메인’을 운영하는 하나 이상의 ‘칸톤 서비스 제공자(CSP, Canton Service Providers)’에 연결해야 합니다. 이때 CSP는 누구나 접속 가능한 공용 형태일 수도 있고, 허가된 대상만 쓰는 프라이빗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동기화 도메인에 연결하기만 하면 같은 도메인에 접속해 있는 다른 모든 참여자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도메인 개설과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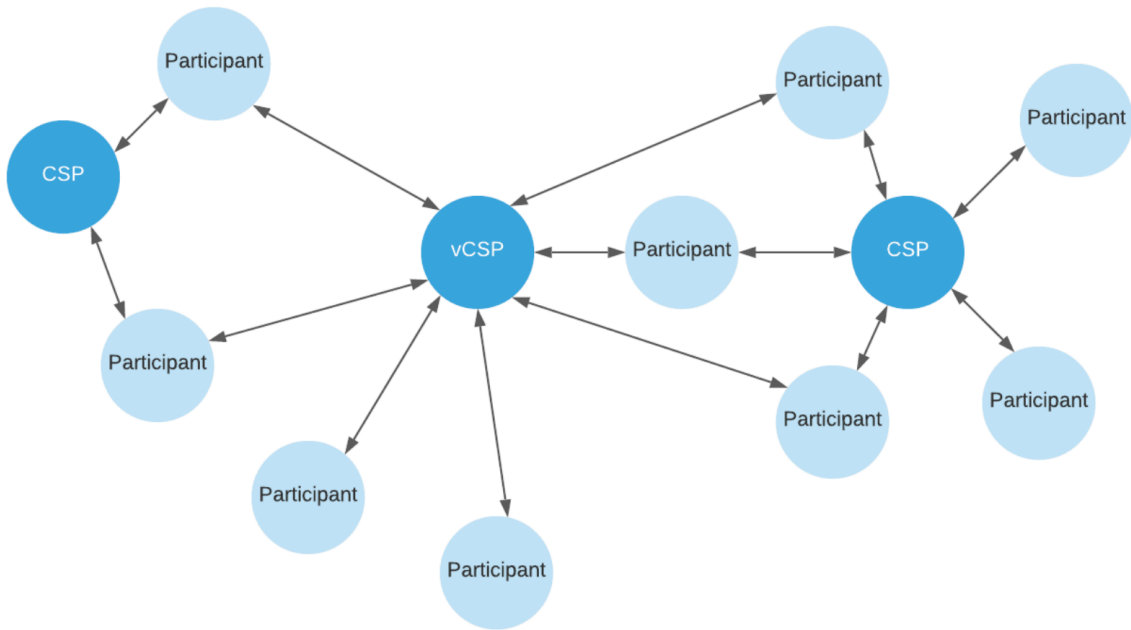
누구나 CSP가 되어 자유롭게 동기화 도메인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리 속도를 높이거나 지연 시간을 줄여야 할 때, 혹은 특정 국가(관할권)나 특정 블록체인 네트워크만 거쳐야 하는 규제 준수가 필요할 때와 같이 다양한 운영상의 목적에 맞춰 도메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¹⁰ Node

프라이버시와 망 중립성¹¹을 보장하기 위해 동기화 도메인을 통과하는 모든 전송 데이터는 암호화됩니다. 따라서 인프라를 제공하는 CSP조차도 메시지의 실제 내용은 절대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동기화 도메인은 참여자 노드 사이에서 암호화된 메시지의 순서를 정하고 타임스탬프(시간 기록)를 찍어 전달하는, 안정적이고 장애에 강한 ‘메시지 대기열’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방형 연결과 메시 네트워크¹²

CSP는 단일 기업이 운영할 수도 있지만, 여러 주체가 컨소시엄을 이뤄 분산형으로 운영하는 ‘가상 CSP(vCSP)’ 형태도 가능합니다. 칸톤 출시 시점에는 컨소시엄이 운영하는 ‘개방형 가상 CSP(Open vCSP)’가 최소 하나 이상 제공될 예정이며, 이곳에서는 모든 참여자 노드의 연결을 허용할 것입니다. 애플리케이션 제공자는 이 개방형 vCSP를 사용할지, 아니면 다른 CSP를 사용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칸톤은 서로 결합 가능한¹³ Daml 애플리케이션들이 얽힌 ‘메시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이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제공자는 신뢰 수준, 접근 제어, 운영 복잡성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각 서비스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칸톤 연결 구조도]

¹¹ Net neutrality

¹² Mesh network

¹³ Composable

네트워크 구조

캐톤의 네트워크는 모든 동기화 도메인과 여기에 연결된 참여자 노드들을 기반으로 형성된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이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참여자 노드와 동기화 도메인 노드 및 각 노드에 배포된 프라이빗·세미 프라이빗·퍼블릭 스마트 컨트랙트 애플리케이션들이 상호 연결된 거대한 글로벌 시스템입니다.

사용자는 크게 세 가지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1. 애플리케이션 제공자: 스마트 컨트랙트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유지보수합니다. 이들은 하나 이상의 참여자 노드를 비롯해 애플리케이션 운영에 필요한 백엔드 인프라와 프론트엔드 웹 인터페이스를 직접 운영합니다. 또한, 자신의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직접 CSP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고, 다른 CSP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2.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대부분의 사용자는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¹⁴나 웹 UI(사용자 인터페이스)¹⁵를 통해 애플리케이션과 상호 작용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참여자 노드가 필요한데, 직접 자신의 노드를 운영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관리해 주는 호스팅 노드를 빌려 쓸 수도 있습니다.
3. CSP: 인프라를 제공하는 주체로, 주로 애플리케이션 제공자가 이 역할을 겸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캐톤 동기화 도메인을 운영하여 참여자 노드들을 서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트워크는 다수의 서브넷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서브넷이란 하나 이상의 동기화 도메인 노드를 통해 서로 거래할 수 있는 참여자 노드들의 그룹을 의미합니다.

네트워크 출범과 운영 방식

캐톤은 vCSP가 운영하는 퍼블릭 동기화 도메인의 출범과 함께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퍼블릭 도메인은 참여자 노드의 모든 연결 요청을 수락하며, ‘슈퍼 검증인 집단(SVC, Super Validator Collective)’이라 불리는 독립적인 기업 연합체가 운영을 맡습니다.

- 수수료 정책: SVC는 네트워크 대역폭 사용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수수료는 대역폭 단위당 미국 달러(USD) 기준으로 고정되어 있어, 사용자는 네트워크 비용을 예측하기 쉽습니다. (단, 수수료는 SVC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¹⁴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¹⁵ User interface

- 선택적 사용: SVC가 운영하는 퍼블릭 동기화 도메인 사용은 선택 사항입니다. 네트워크 참여자라면 누구나 별도의 결제 방식이나 수수료 구조를 가진 새로운 퍼블릭 또는 프라이빗 동기화 도메인을 자유롭게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토크노믹스

캐톤 코인(CC)은 오직 네트워크에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했을 때만 발행될 수 있습니다. 본 항목에서는 시기에 따라 각 사용자 및 역할별로 코인 발행 권한이 어떻게 부여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통해 어떤 기준으로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CC 애플리케이션은 네 가지 핵심 역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사용자: 글로벌 싱크로나이저(Global Synchronizer)를 통해 CC를 보유하고 거래하는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사용자는 직접 자신의 참여자 노드를 운영하거나,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노드를 빌려 쓸 수 있습니다.
2. 검증인: CC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참여자 노드를 운영하는 주체입니다. 검증인 노드는 사용자에게 네트워크 접속 권한을 제공하고, 자신의 노드에 호스팅된 사용자들의 CC 트랜잭션 및 기타 애플리케이션 트랜잭션을 독점적으로 검증합니다. 검증인은 이러한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CC를 발행할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3. 슈퍼 검증인(SV, Super Validator): 검증인 기능과 캐톤 동기화 노드 기능을 모두 갖춘 복합 노드 운영자로, 글로벌 싱크로나이저에 직접 참여합니다. 슈퍼 검증인 노드는 BFT(비잔틴 장애 허용)¹⁶ 합의 방식에 따라 2/3 이상의 다수결로 모든 CC 전송을 검증합니다. 또한 네임 서비스(Name Service)를 비롯하여 글로벌 싱크로나이저 및 생태계를 지원하는 몇몇 주요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합니다.
4. 애플리케이션 제공자: 사용자 및 사용자의 검증인 노드에 캐톤 애플리케이션 접속 권한을 제공하는 검증인 운영자입니다. 이때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트랜잭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글로벌 싱크로나이저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¹⁶ Byzantine Fault Tolerant

소각 및 발행 균형

CC 애플리케이션은 ‘소각 및 발행 균형(Burn-Mint Equilibrium)’ 메커니즘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CC가 네트워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실질적인 가치(내재 가치)에 맞춰 가격(교환 비율)을 안정화하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으로 토큰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발행량은 고정되어 있는데 수요의 변동폭이 크다면 가격 또한 심하게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균형 메커니즘을 적용하면 수요에 맞춰 총발행량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어 가격 변동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CC의 가격이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실제 효용 가치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수렴하게 될 것입니다.

작동 원리 예시

글로벌 싱크로나이저의 사용량이 늘어난 해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용자들이 수수료로 총 35억 개의 CC를 소각했고 연간 발행량은 25억 개라고 한다면, 전체 토큰 발행량은 10억 개가 줄어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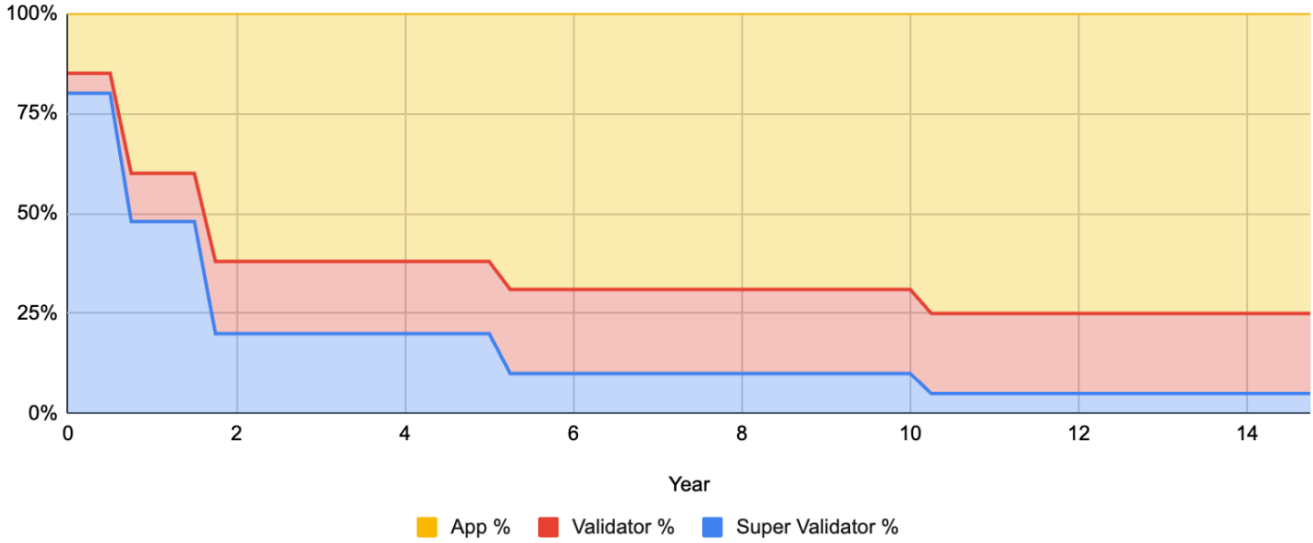
1. 가격 상승: 네트워크의 효용(사용량)은 늘었는데 토큰 발행은 줄어들었으니 달러 대비 CC의 가격(교환 비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2. 소각량 감소: 글로벌 싱크로나이저의 수수료는 미국 달러 기준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CC의 가격이 오르면 사용자가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내기 위해 소각해야 할 CC의 개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예: 1달러 수수료를 낼 때, 토큰 가격이 오르면 더 적은 코인만 내도 됨)
3. 균형 도달: 이렇게 소각량이 줄어드는 추세는 연간 소각량이 연간 발행량인 25억 개와 같아져 균형을 이룰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반대로 사용량이 줄어들어 발행되는 양보다 적은 CC가 소각되는 경우에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CC의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이에 따라 같은 달러 가치를 맞추기 위해 소각해야 할 코인의 개수가 늘어나면서 결국 다시 연간 25억 개 소각이라는 균형점에 도달할 때까지 조정될 것입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에 따라 모든 네트워크 수수료는 즉시 소각되어 유통량에서 제외되며, 네트워크 참여자의 활동량에 기반하여 매 10분마다 새로운 CC가 보상으로 발행됩니다.

시장 상황에 따른 자동 조정 메커니즘

- 유틸리티(활용도) 증가 → 소각량 > 발행량 → 공급 감소 → 가격 상승 → 소각량 감소 → 소각량 = 발행량 = 연간 25억 개로 균형
- 유틸리티 감소 → 소각량 < 발행량 → 공급 증가 → 가격 하락 → 소각량 증가 → 소각량 = 발행량 = 연간 25억 개로 균형
- 유틸리티 안정 → 소각량 = 발행량 → 공급 안정 → 가격 안정

발행 곡선 및 보상 분배 구조



[수익 분배 구조 및 일정]

칸톤 네트워크의 보상 체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생태계가 성장함에 따라 가장 큰 가치를 창출하는 참여자에게 보상이 집중되도록 유연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사전에 미리 할당된 물량은 전혀 없으며, 오직 네트워크의 효용성을 높인 만큼만 정당하게 분배됩니다.

네트워크가 초기 인프라 안정화 단계를 지나 사용자 및 서비스 중심으로 성장함에 따라, 각 역할별 코인 발행 권한도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초기 구축 단계 (2024년 7월~12월): 네트워크의 안정적인 정착이 최우선 과제였던 시기로, 인프라 구축 비용을 부담한 슈퍼 검증인에게 높은 비중의 보상이 집중되었습니다.
- 생태계 활성화 단계 (현재~2029년 중반): 현재는 사용자 및 애플리케이션 중심으로 보상 구조가 전환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제공자의 보상 비중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며, 2029년 중반에 이르면 전체 보상 풀의 62%를 차지하게 됩니다. 반면, 시스템 고도화에 따라 슈퍼 검증인의 비중은 20%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이와 함께 일반 검증인의 기여에 따른 보상 기회가 확대되면서, 참여자 중심의 분산화된 인프라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완성됩니다.

장기 발행량 목표와 공정 출시¹⁷ 원칙

칸톤 네트워크는 공급과 수요의 건전한 선순환을 위해 연간 약 25억 개의 CC를 소각 및 발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소각 및 발행 균형’ 메커니즘에 따라, 실제 트랜잭션 활성화도에 맞추어 매년 25억 개 안팎의 유동성이 시장 상황에 따라 유기적으로 조절됩니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기관에 최적화된 설계

칸톤의 토크노믹스는 기존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가진 구조적 한계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사전 발행 및 벤처캐피털 할당 없음: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토큰은 오직 네트워크에 실질적인 효용을 제공한 대가로 획득된 것입니다. 칸톤 네트워크는 사전에 채굴된 토큰이나 프리세일, 재단 및 투자자에게 미리 할당된 물량이 전혀 없는 공정 출시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 소각 및 발행 균형: 수수료로 지불된 토큰은 소각되고 참여도에 따라 새로운 토큰이 발행됩니다. 이를 통해 발행량을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조절하며 토큰의 가치가 실제 네트워크 사용량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도록 합니다.
- 기업 맞춤 투명성: 개별 트랜잭션 내용은 기본적으로 비공개지만, 보상 분배 현황과 CC 수수료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덕분에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네트워크 내에서 무엇이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로드맵

칸톤은 별도 로드맵을 공지하고 있지 않으나, 공식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해 사업 현황에 대한 공지를 상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https://www.canton.network/>
- 블로그 <https://canton.foundation/blog>
- X(구 트위터) <https://x.com/CantonNetwork>

*상기 링크는 작성일 기준으로 유효한 링크이며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¹⁷ Fair Launch